



*mar* Merry-go-round Artists Relation since 1996  
8th performance

# 의사

문명 과 몸 의 불행 한 조우

본 공연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무대지원사업의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 됩니다.

2006.11.23~12.3

열린무대 소극장

제 작 예술공동체 마르(MAR)  
기 획 이지연  
안 무 강희정  
연 출 구현철  
행위자 문라옥, 한종철, 김종현, 김우석  
김동석, 최우석, 박상희  
미 술 정만영  
미술드로잉 이경아  
의 상 권진경  
음 악 김재열  
조 명 이어진  
사 진 김도웅  
디자인 최성규



*MAR* Merry-go-round Artists Relation since 1998

MAR는 무대공연예술의 장르분류가 무의미해진 시대에 무용, 연극, 미술, 영상, 음악 등 장르와 장르가 즐겁게 <merry> 돌아가면서 <go-round>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룹이다. 물론 이러한 예술적 발언은 이제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ar는 장르와 장르의 관계변화를 더욱 밀도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 생산력이 되는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그때 무대의 신비한 힘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 1998. 12 1st 『시제 11호, 광안리 세이소극장』
- 1999. 6 2ed 『동시대 게임, Little Asia'99 Pusan 아시아 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
- 2000. 8 3rd 『공포, 경성대소극장』
- 2000. 8 4th 『다섯 개의 기둥, 제주도 조각 공원 Art Festival 초청공연』
- 2001. 12 5th 『원손으로, 소극장 페스티벌 OPEN STAGE 초청 공연광안리 세이 소극장』
- 2003. 12 6th 『CAFE DE RAIN, 서울 창무소극장』
- 2005. 11 7th 『청춘 - 꿈지락거리는 구두를 벗다.』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



## 의자의 관한 의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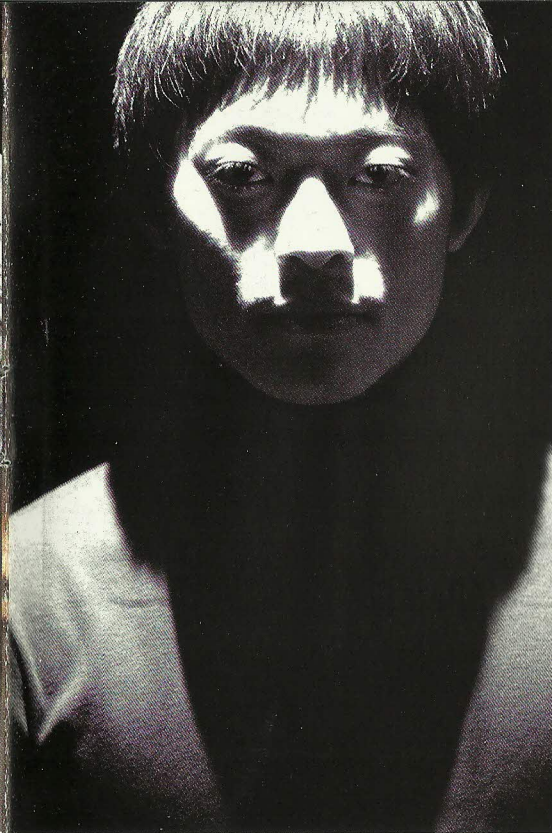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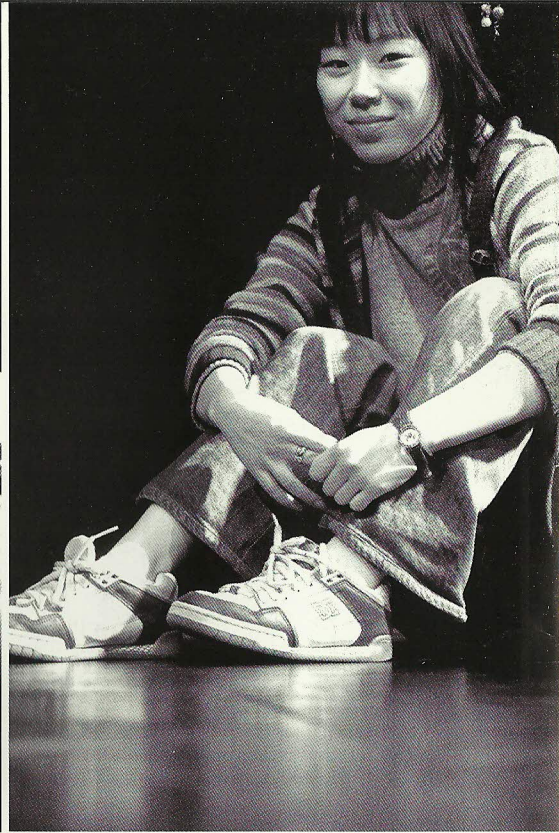
우리는 앉는데 익숙하다. 일상의 대부분이 의자 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의자에 의지할 때는 손으로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접촉하게 된다. 그래서 의자는 인간의 신체를 모방한다. 발, 다리, 엉덩이, 팔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인간처럼 보인다. 몸과 의자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접촉된 그 무엇이다. 그러나 1만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의자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모른다. 우리는 왜 의자에 앉는가. 의자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많은 의자들은 불편한가. 현대의 의자 디자인은 어떤 것을 고려하는가. 의자에 앉다는 것은 몸을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자에 대한 의문들은 몸에 대한 의문으로 바뀐다. 의자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몸인가 생각인가.

의자는 문명화의 상징이다.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품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좌변기를 생각해 보라) 하지만 의자에 앉는 순간 허리에 긴장이 생기고 갈비뼈가 횡경막을 압박하며 내장은 뭉뚱그러지고 모든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의지할 것을 찾게 된다. 의자라는 물건은 우리의 발목, 무릎, 엉덩이가 구부릴 수 있다고 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매일 앉는 의자는 생리학이나 해부학보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세의 왕들과 더 관계가 깊다. 여전히 판사나 사장의 입장에 방청객과 근로자는 일어서서 기다린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작업능률, 규칙, 휴식 등에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의자에서 칠판만을 바라보도록 교육 받았으며 바닥에서 하는 노동은 천한 것으로 여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자에 길들여졌다. 독일 철학자 아이코프에 의하면 <의자는 온순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하게 만들거나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진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의자는 무대공연에서도 허전한 그 무엇을 매꿔 놓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한번 의자에 앉았던 배우는 바닥에 앉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움직임과 그 선택의 자유 앞에서 배우는 쪼뼛매게 된다. 품위와 편안함을 생각했던 우리는 의자에 의해 소외되고 억압받은 몸을 물려받았을 뿐이다. 사물(의자, 문명)의 개념, 즉 그 자체의 유용성과 편안함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20세기의 인류학적 사고는 몸과 영혼을 분리했고 문명은 자연과 몸을 극복해야 될 매개체라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20세기 말 이후 몸에 대한 인류학적 상상력은 변했다. 몸은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복귀했고 술한 몸의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의 주체가 아닌 매개체로서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미디어에서 쏟아 붓는 몸의 이미지 또한 몸의 주체가 아닌 몸매(여전히 남성적 시각의 차별적 언어들)에 있다. 이제 몸의 억압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의 억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몸에 대한 회복과 자신감은 흡소평의 광고처럼 하루에 10분투자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지겹도록 반복된다.

몸은 여러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보편성의 토대이다. 몸이야말로 삶의 근거인 것이다. 21세기 몸에 대한 인류학은 이제 사람들이 몸으로는 느끼는데, 그것을 표현할 문화적 상징이 없을 때 개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의 의자 디자이너 크렌츠에 의하면 <몸은 의자에 앉게 창조되지 않았다. 걷고, 달리고,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 쉬고 싶을 때면 바닥에 누우면 되는 것>이다. 의자와 함께 억압 받은 몸에 대한 크렌츠의 말은 진복적이다. 상상하는 것이 상상력이 되는 시대. 이제 익숙한 사물도 새롭게 봐야 할 때다. 마르의 8번째 공연 『의자』는 인간과 사물의 낯선 만남을 통해 문명의 맹신에 대한 반성적 관점을 가지는 작업이 될 것이다.

- |    |                                    |
|----|------------------------------------|
| 연출 | 1997. 실내극 <어머니, 실크커튼은 말한다> (연출)    |
| 구성 | - 부산비평가그룹신진 '올해의 좋은 연극상', 신인연출상 수상 |
| 연출 | 1998. 해버리기 (연출) -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수상 |
| 연출 | 1999. 쇼타임 (작, 연출)                  |
| 연출 | 2000. 길 (연출) -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수상    |
| 연출 | 2001. 트라우마 (작, 연출)                 |
| 연출 | 2005. 쇼타임 (작, 연출)                  |
| 연출 | 2006. 비닐하우스 (연출)                   |



최우석

독립 무용수

부산 발레 연구회 공연  
신라대, 경성대 공연  
이태상안무 - rush 출연  
이정희안무 - 살풀이 출연  
국제해변 무용제 참가  
제15회 전국무용제 참가

박상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재학

2006. 춤추는 마리오네뜨  
안으로 밖으로  
Forget-me-not(안무)

김우석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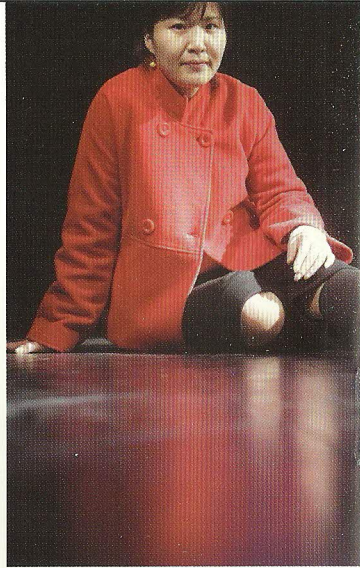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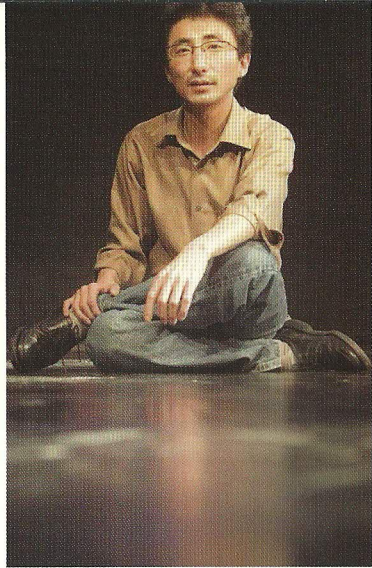
뮤지컬 페임-조 베가스역  
동경 엘리스 페스티벌 초청작 사랑 첫 이미지-꿈  
극 단 배.관.공 - 열망과 새로운 생명  
워크샵 험릿- 레어티즈역  
창작극 물에 잠긴 새  
사랑전-희.애.비  
가워바워보시래기개미똥꾸멍멍이가노래를한다

이정임

아쉬운이

Performer

Performer



### 미술 정만영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6회  
공연기획전
- 2004. 홍·興 한일영상설치교류전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일본)
- 2005. 인삼미디어아트2005 (단원미술전시관, 경기도 안산)
- 2006.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6. 김해국제 비디오아트전 (김해문화의 전당, 김해)
- 2006. 가장 가까운 빛, 미술전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 2006. "빛2006" 하정웅 천년 작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6. 욕망하는 기계, 피노키오 (부산문화회관, 부산)

### 사진 김도웅

- 2006. 비닐하우스  
고래섬  
아프리카 신드롬  
10년후  
롯데호텔 동양의 신비·현상

### 기획이지언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현대무용단 주-교 단원/ 기획  
에드투유 광고기획사 실장
- 2005. 2006 현대무용단 주-교 정기공연
- 2005. 현대무용단 주-교 무대지원금 공연  
공연문화체험 <백설공주>
- 2005. 경성대 주최  
경성대학 50주년 기념 공연
- 2005. 한은주 개인 공연  
부산인의 사랑 "티"
- 2006. 경성대 주최  
국제여름무용축제
- 2006. 조영미 개인공연  
춤추는 마리오네뜨

### 이미지 이경아

- 개인전
- 2000. 이경아 초대전, 갤러리 베스터 히이데, 라니스, 독일
- 2001. 독립규레이터전, 아트 인 로리 부산
- 2003. 이경아 초대전, 우암 갤러리, 청주
- 2005. 이경아 개인전, 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 음악 김재열

'몽팩토리' 대표

### 디자인 최성규

'chamgong design' 대표

### 의상 권진경

- 웨딩 '마리에' 대표
- 'Movie to wear'(제주도)  
KBS 웨딩 박람회
- 무용 현대무용단 춤 정기공연  
순수, 청춘  
마르 프로젝트 원손으로  
카페 드레인
- 연극 트라우마, 길  
어두운 태양

# Chore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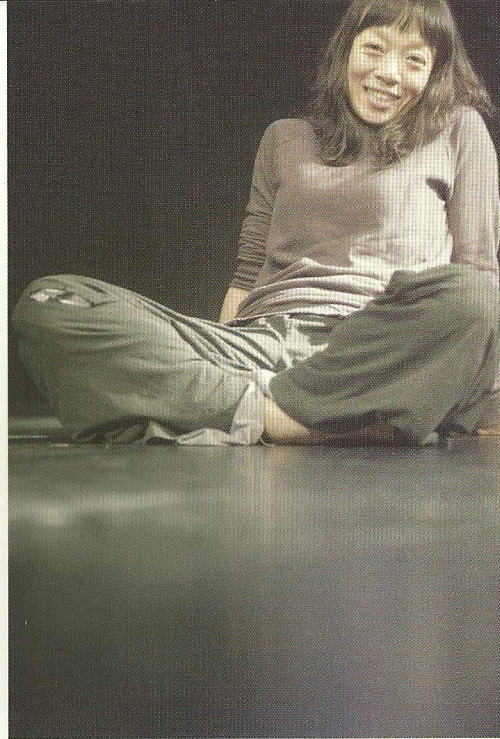
## 안무의 글

몸을 뒹다.

한 노인이 자살의자를 제작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짧은 기사를 보고 작년 이맘때 청춘을 보내기도 전에 몬스터(의자의 애칭)를 생각했다. 의자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외로웠다. 마르 작업을 하면서 진화에 대한 욕구는 절대적인 것이다. 몸에 대한 반성,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는 질문들 새로운 재미가 생겼다. 그래서 작업 내내 작품처럼 날카롭고 애뜻했다. 몸을 뒹다는 마음을 수양하더라의 의미를 가졌다. 몸을 뒹듯이 춤을 춘다.

즉흥작업에서 행위자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사한 에너지와 상상력들은 안무자에게 충만함을 선사한다. 수다를 동반한 장난끼의 몸은 찬란하다. 녹초가 되어 침묵 속에 쉬고 있는 몸. 또한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흘러갔을 모든 시간들은 공연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 공연 보다 이렇게 노는 모습이 더 재밌겠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 과정들을 관객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의자는 처음으로 내가 만들어 함께 연습한 춤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연이다. 작품에서 잘려진 나의 춤 조각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들의 몸에 그것들이 은근한 향기로 배어 있는 게 보인다.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만영씨, 재열이, 김진아 선생님과 작업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주면서 작지만 의미있는 드로잉전을 꾸며주시는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2학년들 학생들 그리고 반짝반짝 작은별과 함께 감동의 글을 주신 한은주 교수님께 특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쉬운 이에게도.



## 강희정

부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 대학 MFA

예술공동체 M.A.R 대표/ 현대무용단 주-교 단원  
한국 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연세대학교  
경성대학교/한세대학교 강사

1992-1995 일리노이 댄스 시어터 활동  
1996-1997 홍신자 웃는돌 객원 활동

## 주요 안무작

- 무용 Water fall  
I'm, Here, Again  
나는이미죽었다  
다섯 개의 기둥  
순수  
신화  
비  
접사  
청춘 -꿈지락거리는 구두를 벗다.
- 뮤지컬 내 생애 최고의 여자  
사랑은 비를 타고  
Fame  
롤라  
자갈치
- 연극 마술 연필  
실내극, 어머니, 실크커피는 말한다  
트라우마  
비연소  
쇼타임  
길

# Staff

## 예술작업의 동료 강희정 에게

차 한잔하자며 얼굴을 보니, 작업 잘되어 가고 있다고 묻지 않아도, 작업자의 살아숨쉬는 내면의 빛이 얼굴로 나타나 '작은 별'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러한 얼굴의 빛남을 보며 항상 예술작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녀에게 삶의 도전정신과 함께 힘과 행복을 준다는 걸 압니다. 그러한 사랑과 힘과 행복을 이번작품 '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전해주리라 봅니다.

예술 창작작업이 창작자의 욕구발현으로 거치지 않고, 우리 삶을 심도있게 실험, 분석하여 함께 지혜로운 삶의 방안을 생각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하는 기대와 함께 그것을 위하여 창작자는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기습 뛰는, 하고 싶은것들을 절제와 함께 다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술작업에 임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동료로써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06.11.21 한은주

경성대 무용과 교수  
현대무용단 주·예술감독



## 마르의 실험

마르의 실험은 행위자 Performer의 몸이 가지는 상징성, 극적인 이미지, 회화성을 확장시켜 신체언어의 원형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미리 결정된 양식들에 의한 공연이 아니라 몸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연상 작용에 의해 행위자 상호간, 행위자와 관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의 깨어 나옴의 순간에 발생하는 폭발력(몸의 직관에 의한 극성)을 실험한다. 행위자는 관객과 직접적으로 관계맺음을 하는 창조자로서 존재하며 경이로운 체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신체언어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